

실적 '뚝' 코인거래소... 금융권과 협업 '미래사업' 밑그림

5개 거래소, 일일거래액 12억 달러
작년 7월 역대 최대치의 30%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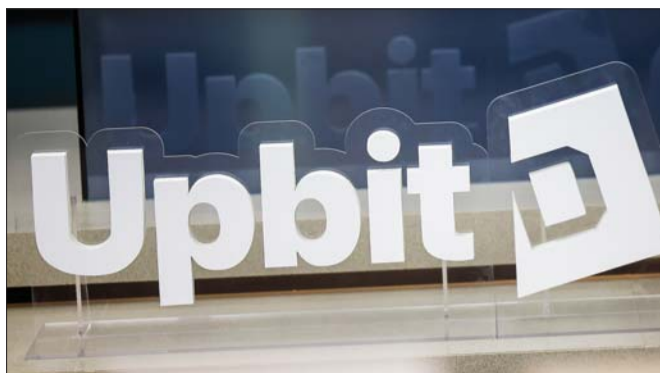
토큰증권과 가상자산 연결사업
스테이블코인 유통 인프라 주목

가상자산 업계가 '차세대 먹거리'를 탐색하고 있다. 가상자산의 가격 하락과 거래량 감소로 거래소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수료 수입이 급감했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및 규제환경에 기존 매출 구조의 지속가능성에도 빨간불이 켜져서다. 주요국 거래소들이 증권사·핀테크 등 금융업권과의 협업으로 돌파전략을 마련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입법 공백'이 해소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가상자산 업계 매출 '빨간불'

25일 가상자산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국내 5개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의 일일 거래액은 약 12억달러(지난 23일 기준)로 집계됐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7월의 30%에 미치지 못하는 규모다. 미국 내 가상자산 규제 완화 기대감 후퇴, 금리 전망 변화 등으로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한 영향이다.

국내 거래소들은 매출의 약 99%를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에 의존



서울 강남구 업비트 고객센터.



서울 서초구 빗썸라온지 강남본점.

/뉴시스

한다. 거래량이 감소하면 수익성도 빠르게 악화될 수밖에 없다. 지난 1분기를 기준으로 국내 점유율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순이익은 78%나 급감했고, 2위 빗썸은 적자로 전환하는 등 가상자산 거래량 감소에 가상자산 업계의 업황도 빠르게 악화됐다.

시장에서는 위험자산 선호가 회복되면서 가상자산 거래도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거래소들의 매출 전망은 밝지 않다. 탈중앙화거래소(DeFi)로의 자금 이동, 지수추종펀드(NTF) 등 간접투자 상품 활성화 등 시장 환경의 변화로 매출 증가가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여겨져서다.

◆ 해외선 금융권과 '협업' 활성화

가상자산 거래량 감소로 가상자산거래

소들이 매출 감소를 겪는 가운데, 규제가 비교적 명확한 해외 주요국 거래소들은 금융권과의 협업을 통해 매출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가장 보편화 된 금융권 협업 사례는 '토큰증권(STO)'을 유통하는 '종합거래소'로의 전환이다. 토큰증권을 실물자산이나 증권 등 금융상품을 블록체인 기반의 '조각' 형태로 나눠 거래하는 기술이다. 주요국 거래소들은 증권업 라이선스를 보유한 증권사와 협업을 통해 토큰증권을 유통하며, 기존 가상자산과의 연결도 꺾이고 있다.

은행업권에서는 가상자산의 유통·예치 등 '인프라'에 주목하고 있다. 통화가치와 연동돼 발급되는 '스테이블코인'이 규제 편의성과 낮은 수수료를 앞세워 기존 금융 시스템과 경쟁할 것으로 여겨져서다.

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의 유통과 예치, 결제 시 거래소의 유통망을 활용하고, 거래소는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공유하는 구조다. 국내에서도 '금가분리' 완화 움직임에 주요 은행들이 거래소 지분을 확보하는 등 관련 움직임이 활발하다.

카드사, PG사, 핀테크 등 금융결제 분야와의 협업도 활발하다. 해외에서는 기존 통화 대비 수수료 부담이 낮고 국가 간 송금 편의성이 높은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결제앱이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결제 시스템은 별도의 환전 절차가 필요없고, 카드나 간편결제 앱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사용자 편의성도 높다.

◆ '입법' 및 '제도화' 과제

해외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수익

다각화 움직임이 활발하지만, 국내 거래소들은 아직까지 조심스러운 태도를 지속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를 규율하는 명확한 법안이 부재한 '입법 공백'이 지속되고 있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한국은행 등 규제당국 간의 방침에도 차이가 있어 사후 규제 가능성도 존재해서다.

국회에서는 가상자산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준을 마련하는 등 '가상자산 선진화'를 위한 법안 이다수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22대 국회가 후반기에 맞아 재편에 돌입했고, 하반기 국정감사도 예정돼 있어 입법 우선도는 높지 않다. 업계에서는 연내 입법이 불투명하다는 우려까지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국내 가상자산 업계는 물론, 금융업권의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입법 공백이 빠르게 해소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해외 거래소들은 외연 확장을 통해 수익구조를 다변화하는 등 환경 변화에 맞춘 전략을 취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가상자산 산업은 물론, 금융업계의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뚜렷한 입법 목표와 입법 일정이 제시돼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metro

“이제 카드 안 써요”... 올해 320만명 신용카드 해지

여신금융협, 카드사 8곳 해지회원
전년 동기 대비 22만명, 7.4% 증가
'해자카드' 단종 등 혜택 축소 영향

신용카드를 해지하는 개인 고객이 증가하고 있지만 신규 회원은 줄면서 신용카드 회원 수가 반이 약화되고 있다. 카드사의 혜택 축소와 함께 간편결제서비스로 고객이 옮겨가면서다.

25일 여신금융협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카드사 8곳(삼성·신한·현대·KB국민·롯데·우리·하나·비씨)의 신용카드 개인 해지 회원 수는 총 320만3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298만3000명)보다 22만명(+7.4%) 증가한 수치다.

월별로 살펴보면 지난 2월을 제외하고 매달 증가했다. 전년 대비 카드를 해지한 회원 수는 1월 10만7000명, 3월 8만2000명, 4월 4만4000명, 5월 9000명씩 늘었다.

신규 회원 수는 감소하고 있다. 같은 기간 신용카드 개인 신규 회원 수는 396만1000명으로 전년 동기(405만1000명) 대비 9만명(-2.2%) 감소했다.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고객 자체가 줄어 들고 있는 셈이다.



서울 시내의 한 식당에서 식당 종업원이 카드 결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카드 혜택 축소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순이익이 감소하고 있는 카드사들은 비용 효율화 흐름을 유지하면서 신용카드 혜택을 축소하고 있다. 특히, 거론되는 것이 해자카드 단종이다.

대표적으로 신한카드는 이달 25일부터 플래티넘샵(♯) 시리즈 카드를 대거 단종한다. 러브 플래티넘샵, 클럽 플래티넘샵, 레슨 플래티넘샵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신한카드 레이디', '신한카드 아름다운', '신한카드 언박싱', '신한카드 The BEST-F', '토스페이 플러스 신한카드' 등의 신규 발급을 중단한다.

플래티넘샵 시리즈의 경우 대표적인 해자카드 상품으로 꼽힌다. 러브 플래티넘샵 카드만 살펴봐도, 패밀리레스토랑 20~30%, 스타벅스 20%, 뷰티플러스 10%, 테마파크 자유이용권 할인 등 일상 소비 전방위에서 높은 할인을 제공한다.

롯데카드도 지난달 '롯데 스카이프스 플래티넘 체크카드'를 단종했다. 연회비 1만원에 이용금액 1500원 당 1마일리를 적립해 주는 해자카드다. 일부 소비자들은 롯데 스카이프스 플래티넘 체크카드 중단을 두고 체크카드의 마지막 혜택

창구가 사라졌다고 입 모은다.

한 소비자는 "체크카드는 상품권 살 때 한도가 없어 체크카드 한도까지 상품권 발급이 가능하다"며 "상품권을 대량으로 사면서 마일리지 혜택을 크게 누릴 수 있는 마지막 혜택 희망자가 사라지는 꼴"이라고 말했다.

간편결제서비스 이용 고객 증가 흐름도 한몫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빅테크3사(네이버·카카오페이·토스페이)의 온오프라인 합산 결제 금액은 106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첫 100조 돌파다. 지난 2024년 간편결제 금액은 92조9000억원 선이었다. 디지털 금융거래가 확산하면서 간편결제서비스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흐름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모바일을 중심으로 한 전자상거래 등 디지털 금융거래가 확산되면서 전자금융업의 성장세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등록 회사 수와 함께 매출도 지속해서 증가하는 등 외형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주간 서울 아파트값 0.3%대, 상승폭 확대

동탄 2.22%→1.64% 상승폭 줄어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다시 0.3%대로 커졌다. 지난주 2.22% 급등했던 화성 동탄구는 이번주 1.65%로 상승폭이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오프셋을 보였다. 전셋값도 서울에서 0.35% 오르며 상승폭이 확대됐다.

2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22일 기준 0.10% 상승했다. 수도권은 0.20% 올랐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0.27%에서 이번주 0.30%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은 5월 셋째주 0.31% 오른 뒤 6월 셋째주까지 0.2%대 상승률을 유지했거나 이번주 다시 0.3%대에 진입했다.

부동산원은 "정주여건이 양호한 주요 단지과 개발 기대감 있는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꾸준하고 매수 문의가 증가해 상승계약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강북권에서는 도봉구가 창·방학동역 세권 위주로 0.46% 올라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성북구는 종암·정릉동 대단지 위주로 0.41% 상승했다.

강남권은 구로구에서 개봉·구로동 주요 단지 위주로 0.41% 올랐다. 강남구의 경우 대치·압구정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

주로 0.35% 상승하며 전주(0.31%)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한편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0.21%에서 이번주 0.19%로 상승폭이 둔화했다. 동탄구는 이번주 1.65% 올랐다. 지난주 2.22% 급등한 것과 비교하면 상승폭은 줄었지만, 여전히 1%가 넘는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기업 접근성이 높은 이른바 '셔세권' 수요와 추진 속도가 맞물리며 청계·목동 단지 위주로 가격이 올랐다. /성채리 수습기자 cr56@

신한은행 스테이블코인 해외송금 프로젝트 '판게아' 참여

신한은행은 한국과 유럽 은행권이 자국 통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해외송금 방식을 공동으로 검증하는 프로젝트 '판게아(Pangea)'에 참여한다고 25일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은 원화나 유로화 등 기존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도록 설계된 디지털자산이다. 프로젝트 '판게아'는 원화 및 유로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한국과 유럽 간 자금을 보내고 정산하는 방식을 연구·검증하는 사업이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신한은행을 비롯한 국내 은행들과 유로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추진하는 유럽 은행권 법인 키발리스(Qivalis), 스위트(SWIFT), 체인링크(Chainlink), 페이스퀘어랩 등이 참여한다. 지난해 진행된 한국과 일본 은행권의 스테이블코인 해외송금 실증 경험을 바탕으로 협력 대상과 실증 지역을 유럽까지 확대해 추진된다.

참여기관들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유로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교환하고 정산하는 구조를 설계하고 검증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해외송금 과정에서 여러 금융기관과 통화를 거치는 절차를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하고, 국가별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을 안전하게 연계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운영체제도 함께 점검한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아닌, 한국과 유럽 은행권이 각각 발행할 수 있는 자국 통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간 연계 가능성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참여기관들은 프로젝트 설계와 시범 모델 개발을 거쳐 해외송금과 은행 간 자금정산 과정을 단계적으로 실증할 계획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